상처받은 '잠룡' 이재명 '큰길' 언급

대권가도 먹구름 걷혀
'실무적 행정가' 역량 입증
반전 기회 활용할지 주목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지지자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직무유기·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전면 무죄선고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치적 여정에 먹구름이 걷혔다.

항소심과 상고심 판단이 아직 남아 있지만, 1심 판단이 그대로 확정되면 이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하고 훼손된 명예를 완벽하게 회복하는 것은 물론 잠재적 대권주자로서 정치적 입지도 한층 다져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년공 출신의 인권변호사라는 입지전적인 인생스토리로 성남시장을 거쳐 경기지사 자리에 오른 이 지사는 이번 사건으로 밀어닥친 위기의 파도를 '오뚝이'처럼 넘긴 셈이다. 이 지사는 이날 선고 직후 지지자들에게 "지금까지 먼 길 함께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서로 손잡고 큰길로 함께 가시길 기원한다"며 마치 작심하듯 한 소감을 밝혔다. '큰길'은 '대권가도'라고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잠룡의 용틀임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이어 "비 온 뒤 땅이 굳어진다는 말을 명심하도록 하겠다"는 의미심장한 말도 남겼다.

지난해 6월 바른미래당 측의 고발로 시작된 이번 사건에서 이 지사는 기존의 '싸움닭'에 이미지를 뛰어넘어 법률가로서 집요한 승부사 기질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라는 경구를 입증하기도 하듯 정면돌파를 무기로 위기를 기회로 반전한 그의 전투력이 이번에도 그 효력을 입증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그동안 정치여정에서 여러 번 갈등과 위기를 겪었지만 이번 사건은 그 결과가 가져올 파장에서 무게감이 달랐다. 20회 공판에 55명의 증인이 나선 '법정혈투' 1라운드에서 심판인 법원은 국가공권력인 검찰이 아닌 이 지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 때문에 이번 판결이 최종심까지 가서 확정되면 '경기지사는 대선주자의 무덤'이라는 징크스에서 벗어나, 이 지사는 대권가도에 설 수 있는 정치적 동기와 입지를 동시에 얻게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금까지 높은 인지도 속에 경기도에 터를 잡은 이인제, 손학규, 김문수, 남경필 등 4명의 걸출한 전직 경기지사는 임기 말에 순탄치 않은 대권가도를 달리다가 낙마했다. 이 지사 역시 경기지사 당선 이전인 성남시장 재임 당시인 2017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섰다가 적지 않은 정치적 후유증을 경험했다.

그 당시 후유증이 지금도 이 지사의 정치적 행보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는 보는 시각도 있다. 이를 의식한 듯 이 지사는 지난해 7월 취임 때부터 '경기지사 무덤론'을 경계하며 '실무적 행정가'로 자처해왔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그는 '실무 행정가'으로서의 역량을 입증할 기회를 이어갈 뿐더러 경쟁력을 갖춘 대권주자로서 '일하는 정치인'으로의 이미지를 다져갈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연합뉴스

5·18 사적지 순례 '다크 투어리즘' 뜬다

市, 12월까지 7회 운영… 17~18일 日 관광객 방문

제39주년 5·18민주화운동을 앞두고 비극적 역사 현장을 돌아보며 교훈을 얻는 '다크 투어리즘(dark tourism)'이 해외 관광객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광주시와 광주관광컨벤션뷰로는 올해 5·18민주화운동과 연계한 광주 5·18민주화운동 다크 투어를 7회에 걸쳐 운영한다.

우선 지난 1월 일본 관광객 14명이 광주를 찾아 국립5·18민주묘지와 전남대 정문, 옛 전남도청 등 주요 사적지를 둘러보며 5·18민주화운동의 의미를 되새겼다. 5·18주간인 17~18일에는 20명의 일본 관광객이 광주를 찾아 주요 사적지를 둘러보고 5·18유족과 만나 참혹한 역사의 생생한 증언을 듣는다.

6월부터 12월까지 5회에 걸쳐 5·18민주화운동 행적을 따라가는 해외관광객 여행도 예정돼 있다. 미국 등 3곳의 국외단체에서도 이번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순 광주시 관광진흥과장은 "동·서독을 가로막았던 베를린 장벽이 다크 투어리즘의 대표 관광지가 된 것처럼 광주가 해외 여행객들에게 역사의 교훈을 줄 수 있는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전남, 영화·드라마 촬영 메카로 급부상

'백두산' '빙의' 등 올해 영화 3편·드라마 4편 촬영

전남도가 영화·드라마 제작을 지원하면서 지역 명소 알리기에 나서고 있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배우 이병헌, 하정우 주연의 영화 '백두산'과 배우 정우와 김갑수 주연의 영화 '뜨거운 피' 가 제작 지원을 받아 전남에서 촬영했다.

'백두산'은 갑작스러운 백두산 대폭발로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재로 하고 있다. 총 제작 규모 300억 원 가운데 3억6000만 원을 들여 광양 항만 세트장과 중마부두를 배경으로 촬영을 진행했다. 영화 '뜨거운 피'는 제작비 102억원 규모로, 부산 변두리에서 자란 한 남자의 생존을 위한 싸움을 다루고 있다. 전남 촬영에 1억2000만 원을 들여 목포 신안비치호텔을 배경으로 촬영을 마쳤다.

여기에 류승범 주연의 영화 '타짜3'도 강진 관광해안로와 만덕호 일대에서 촬영했다.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 '빙의'도 여수 용월사를 배경으로 촬영했고 드라마 '이몽', '우금티'는 순천드라마촬영장과 담양, 보성 일원에서, '닥터프리즈너'는 장흥교도소를 배경으로 촬영을 마쳤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난해 목포에서 촬영한 영화 '롱 리브 더 킹'은 6월에, 여수, 영광, 함평에서 찍은 영화 '디바'는 9월에 개봉될 예정"이라며 "영화 관람객이 촬영지인 전남을 찾아 관광객이 늘어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트럼프 내달 하순 방한… 비핵화 협의

청와대·백악관 동시 발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하순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오전 서면브리핑에서 이 같은 일정을 공개한데 이어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외교경로를 통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며 "양 정상은 긴밀한 공조를 토대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동맹 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G20 정상회의가 내달 28~29일 일본 오사카(大阪)에서 열리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은 그 직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상회담은 하노이 핵 담판 결렬 후 북미 비핵화 협상이 두 달 넘게 교착 국면을 이어가고, 최근 북한이 잇따라 발사체를 쏘아 올리며 한반도 안보를 둘러싼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성사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문 대통령의 4차 남북정상회담 제안과 지난 4·11 워싱턴 한미정상회담에도 좀처럼 대화의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회담이 '대화의 모멘텀'을 되살릴 지렛대로 작용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남북미 정상이 공히 완전한 비핵화 목표에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북미 간 적지 않은 비핵화 방법론 차이가 협상의 교착을 가져온 만큼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일 묘책이 도출될지도 관심사다. 아울러 내달 한미 정상회담을 고리로 대화 계기가 마련되고 이것이 4차 남북 정상회담으로 이어진다면 북미 간 핵 대화 동력은 급속히 복원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기대섞인 전망도 나온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한국, 글로벌 자동차관세 부과 대상서 제외할 것"

블룸버그, 美 행정명령안 입수

미국이 한국을 글로벌 자동차 관세의 부과 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미국은 일본, 유럽연합(EU)을 대상으로 삼아 앞으로 6개월 동안 협상을 진행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할 행정 명령안을 입수했다며 15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통신은 한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멕시코도 트럼프 행정부의 징벌적 자동차 관세에서 면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수입 자동차와 부품이 국가안보를 해친다며 25%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미국 상무부는 자동차, 부품 수입의 국가안보 위협성을 조사한 보고서를 올해 2월 제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 검토 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18일까지 보고에 대한 동의 여부와 대응 방식을 결정한다.

블룸버그는 입수한 행정 명령안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 결정을 180일간 연기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 일본과 그 기간에 자동차·부품 수입을 제한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는 고율 관세 결정이 오는 11월 14일까지 연기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의회조사처에 따르면 대통령은 이번 사안에서 무역 조치의 집행이나 폐기뿐만 아니라 협상을 조건으로 한 연기도 선택할 수 있다.

미국은 현재 일본, EU와 양자 무역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그 때문에 자동차 고율 관세는 일본과 EU를 상대로 유리한 협상 결과를 끌어낼 미국의 지렛대로 인식돼오기도 했다. 고율 관세 표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고된 한국, 캐나다, 멕시코는 미국과의 무역협정 개정을 통해 자동차 교역 문제를 매듭지었다. /연합뉴스

전남 미래 먹거리산업 자문 '신성장추진위' 출범

민선 7기 전남도가 지역 출신 고위관료, 민간기업 전·현직 CEO, 법조계·학계 저명인사 등으로 미래 먹거리산업을 자문할 '전남 신성장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들은 앞으로 전남의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에 대한 자문과 함께 국내외 산업정책 동향 및 국내외 중견·대기업에 대한 투자유치 자문 역할을 하게 된다.

전남도는 16일 "지난 15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출범식을 갖고, 에너지신산업 등 4대 신성장산업의 발전 방안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김영록 전남지사가 민간위원 1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정도 천년, 전남 새천년 비전'이라는 주제로 전남의 신성장 전략산업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조순태 위원은 "전남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가 필수적이며, 우수 중고등학교와 한전공대 등 특성화 대학을 육성해야 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임 야
▶단기 투자 최고의 물건임
▶인접 맹지도 15만~20만원씩매매됨
▶대학교수, 세무사, 간호사도 공유자임
▶남구 덕남동 산, 도로접함
▶992㎡(300P), 지분 매매
▶기획 부동산 물건 아님
도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사정상 급매함, 4,500만원(일시불)
H. 010-6834-740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담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계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팬션·전원주택지
• 담양군 월산면 월계리 추월산 가는 길 2268㎡ 1억5800
• 영광 백수해안도로 칠산바다 전망 좋음 1130㎡ 1억2천
교 환
• 광산구 송정동 상업지 311㎡ 집 132㎡ 은행 9천 매도 3억천
• 운암동 아파트지하 205㎡ 은행 8천 창고·사무실적합 1억9천
투자·매도·교환
• 광산구 본덕동 그린벨트 자연녹지 1465㎡ 차량진입가 1억6천
• 광산구 쌍암동 대형빌딩 중의 2층 25㎡ 과일즙 전문점 시설완비 1억5천
• 별장·나주시 다시면 회진리 영산강 부근 땅 450㎡ 건평 110㎡ 3억
• 나주시 영산포역 부근 상업지 1025㎡ 위치좋음 6억3천
• 완도·광주간 고속도 영암 톨게이트서 금정면 방향 1㎞ 4028㎡ 다용도 4억
• 북구 두암동 4차선 950㎡ 병·의원 등 적합 18억7천
• 남구 월산동 월산아파트 부근 조용한 생활적합 664㎡ 2층주택 4억4천
• 담양 금성면 추월산 가는 길 땅 808㎡ 커피숍·식당 적합 3억4천
상가건물
• 월산동 무진중 부근 버스도접 토지 155㎡ 건물 263㎡ 4억
• 충장로 4가 땅 261㎡ 건물 1128㎡ 은행 11억 전세 1억8천 월 1000. 25억
• 월산4동 주민센터부근 도로코너 땅 227㎡ 상가주택 357㎡ 매도 5억8천
특급물건
• 남평읍 드들강 시설좋은 모텔 땅 2741㎡ 건평 1784㎡ (28실·식당) 다용도 가능 17억
• 목포 옥암동 여관 대지 439㎡ 건평 989㎡ 객실 27 은행 4억 매도 6천만원
• 담양군 무정면 땅 3850㎡ 별장 147㎡ 조경완벽 팬션좋음 7억2천
• 광산구 송학동 땅 43278㎡ 사찰있음. 납골당·복지시설 적합 15억
• 무안군 운남면 바다인접 11607㎡ 요양시설·전원주택 적합 4억3천
• 장흥군 수문해수욕장 2346㎡ 팬션·노인·요양시설 등 적합 -일부는 광주 원룸부지와 교환 가능 4억 7천
• 순천 낙안민속마을 저수지 옆 펜션 대지 2180㎡ 펜션3동 372㎡ 8억
☎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

한마음 공인중개사
토 지
● 광산구 장수동 , 답 ,자연녹지, 마을접, 건축가, 1,272㎡ 매4억
● 남평읍 동사리,강변도시내 상업지역 ,463㎡ ,매매가 14억
● 남원시 수지면 호곡리 목장지,임야,답, 11만㎡,우사4동, 매12억
● 무안 현경면 마산리 ,전, 5300㎡ , 매 3억8천만
● 해남 산이면 계획관리지역, 대지 17,000㎡ 매15억
● 강진 성전면 상업,준,2종일반주거지역, 대지 4,240㎡ 매20억
● 영암 학산면 매월리 임야 11,800㎡,보전관리, 2차선도로접 매1억1천만
상 가
● 백운동,2층상가주택 코너 대지99㎡ 보3천만 월40만원포함 매 1억8천
● 두암동 4층상가건물 코너 대지210㎡ 보7500만 월190만 포함 매7억
● 산수동, 4층상가주택,대지132㎡ 보2500만,월160만 포함, 안집제외, 매5억8천
● 임동 168세대 아파트, 1층상가, 대로접, 330㎡,은행4억 포함, 승계가, 매8억5천
무인텔·사찰·기타용도
● 해남읍 종교지,전,임야,1만㎡ 사찰건물최고,납골당,4동, 개인사찰임, 매11억
● 화순도곡 무인텔 대지2,900㎡ 건물3동 월매출6천만원 객실37실 매35억
● 담양 월산면 중월리 대지4,200㎡, 모텔4층,2층식당펜션,기타용도 매12억
전원주택
● 봉황 와우리 농가주택 대지 575㎡ 주택106㎡ 올리모델링 매 1억4천
아파트·빌라
● 계림동빌라 5층 중 4층 엘리베이터 방2 거실 큼 전세 8천만 포함 매1억3천만
● 소태동 무등산골드클래스, 112㎡, 6층 급매, 매 5억
● 월산동 우방아이유셀 115㎡, 9층, 매3억 8천만
상담전화 ☎ 010-2314-8567

임 야
단독섬
▶ 바로삽니다
▶ 지분물건 환영
문의. 010-6834-7400